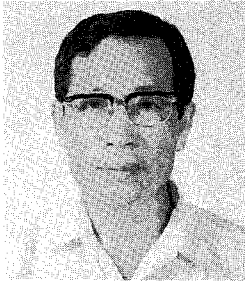


가장 합리적인 자조금 조성 방법을 선택하길...



김 정 식

(자연농장 대표/포천계란분회장)

2002년도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 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3년 하반기 의무자조금제도 적용을 앞두고 그 자조금 제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놓고 관련 단체와 양계인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산란계 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협회를 중심으로 실시해온 임의 자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형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해보기도 하면서 무임승차 없는 자조활동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해 왔다. 그 와중에 의무자조금 제도가 법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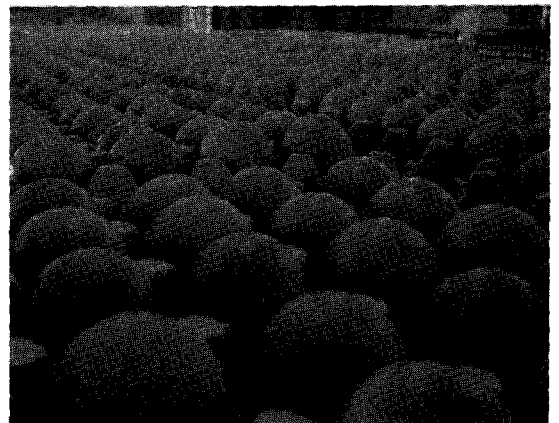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양계인이 같은 조건에서 참여하여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진정한 자조금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 자조활동 자금을 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성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었던 사료 부분에서 거출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한다.

닭은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사료를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축산물을 생산한 생산자가 고루 그 산물의 소비 촉진에 참여하게 됨으로 누구를 위한 자조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수혜자이므로 지금 조성에 불만을 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아무쪼록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또한 차선책으로 부화장을 통하여 병아리 생산에 부과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병아리에 부과하는 것은 모든 병아리가 반드시 계란생산에 가담한다고 볼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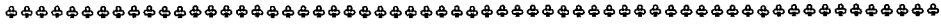


고 또한, 병아리 생산업체(부화장)가 모두 동참한다는 보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생산된 계란에 부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개개인의 계란 생산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거래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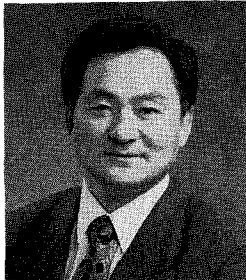
사료관련 업체에서 일전에 사료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모처럼 조성된의 무자조금 제도를 무의미하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다시한 번 재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 본다.

자조활동 자금 사용도 중요하지만 양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쓰여지는 만큼 전 생산자가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조성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이 도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양계**



양계인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이 상 호
(산청 산골농장 대표)

자조금의 제도에 관하여 생각을 말하기가 시기적으로 무척 힘이 들지만 축산 농가(특히 양계농가) 독자 여러분께 필자의 개인 생각과 개인적인 상식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밝혀두면서 다소 맞지 않은 통계나 부족한 부

분이 있어도 양해를 구하면서 원고를 집필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산청에서 산골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30년이란 세월동안 계란과 함께 유통사업을 병행해오면서 가격과 품질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최근의 채란산업은 세월의 흐름 속에 품질과 유통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부분이 대형화, 자동화란 두 축의 둘레에서 생산과 유통의 변화를 맞아 생산농가에서는 생산과잉으로 인한 유통 침체와 급기야는 폐계 처리가 어려워지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필자의 농장에서 5만수 계군의 도태가 어려워 산청의 조그만 군에 닭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는 지경에까지